

중국-ASEAN 간 경제통합: FTA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나희량 | 부산외국어대학 국제무역학과

본 논문은 실질이자율 평가설(Real Interest Rate Parity Theorem, RIRP)을 토대로 한 계량분석을 통해 중국과 ASEAN의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과 ASEAN 간 경제적 교역과 교류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2005년 7월 중국-ASEAN 간 FTA 발효 이후 경제통합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실질이자율 평가설에 근거한 유위험이자율 평가식(Uncovered Interest Parity, UIP)과 구매력 평가식(Purchasing Power Parity, PPP)에 대한 계량적 검정 및 두 지역 간 상품 및 자본시장 통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검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대체로 자본 및 상품시장에서 모두 중국-ASEAN 간 경제통합이 FTA 이후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자본시장에 비해 상품시장의 통합이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경제통합, 중국-ASEAN FTA, 실질이자율 평가설, 유위험이자율 평가설, 구매력 평가설, 상품시장, 자본시장

I. 서 론

2008년 9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유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선진, 개발도상국 진영 모두 심각한 경기침체와 금융 및 실물경제의 동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세계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진국 진영을 중심으로 한 재정 및 통화정책 등의 수요진작 정책의 성공과 보호무역의 발흥을 견제하기 위한 각 국가들 간의 경제정책 공조의 실현 및 지속 여부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의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독주로는 불가능하며 EU, 일본 등 전통적인 선진국 진영과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한국, 동남아국가연합(이하 ASEAN)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수출의 감소, 해외직접투자(이하 FDI)의 급감, 해외자본의 유출 등으로 인한 투자 감소 및 이로 인한 실업자 증대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외 없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동남아시아 등과 같은 인근지역에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호기로 활용하고 있다. 그 예로 중국 위안화의 동 지역 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 증대 기도를 들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은 홍콩, 마카오, ASEAN 국가들과의 무역거래에 있어 미 달러화 등 국제적 통화만을 결제수단으로 인정해 왔지만 2008년 12월 이후 위안화도 공식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였다.¹ 이는 그 동안의 중국과 ASEAN 간 교역의 지속적인 증대에 대한 결과이자 향후 중국의 ASEAN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의 제고를 위한 시도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²

1. 2008년 12월 24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열고 내수 진작과 무역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대책에는 중국 본토 일부 지역에 한해 홍콩, 마카오, ASEAN과의 무역거래 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 동부 광둥성과 양쯔강 하류 삼각지에 한해 홍콩과 마카오 간 위안화 거래를 허용하고, 또한 남서부의 광시자치주와 윈난성 일대에서 ASEAN 10개국 간 거래가 이뤄질 경우에 한해 위안화 결제를 허용하였다.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은 증가일로에 있다.³ 미국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세계경제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의 확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ASEAN 간 상품교역을 비롯, 중국의 대 ASEAN FDI 및 관광객 등 인적 교류는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⁵

본 논문에서는 중국과 ASEAN 간 경제적 교류증대를 근거로 중국-ASEAN 간 경제통합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실질이자율 평가설(Real Interest Rate Parity)을 토대로 유휴이자율 평가식(Uncovered Interest Parity)과 구매력 평가식(Purchasing Power Parity)에 대한 계량적 검정을 통해 중국-ASEAN 간 상품 및 자본시장의 통합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2005년 중국-ASEAN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발효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하고 FTA에 따른 경제통합에 대한 효과의 실제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ASEAN FTA의 성격은 자본, 노동 및 일부 민감 품목 등은 포함시키지 않는 상품협정에 한하는 것으로 낮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볼 수 있다.⁶ 2005년 7월 중국과 ASEAN 10개국 간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됨으

2. 위안화 결제 허용 조치 결정 당일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이미 위안화가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위안화 거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미국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에는 위안화를 세계 기축통화로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하였다.
3. 한 예로 2008년 3월 세계적인 기업경영 컨설팅 그룹인 PwC(PricewaterhouseCoopers)에서 발표한 The World in 2050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GDP기준 경제규모는 2025년경 미국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미국의 약 1.3배까지 그 격차를 벌이는 것으로 전망했다.
4. 최근 중국경제 관련 이슈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를 위해, 미국 발 경제위기 이후로는 주로 경기회복 예측을 위한 연구 시 활용되고 있다.
5. 2장 참조
6.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은 그 정도에 따라 특혜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의 순으로 구분된다. 특혜무역협정은 참여국가와의 무역 시 비회원국에 비해 무역장벽이 낮은 가장 느슨한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에는 모든 무역장벽이 제거되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무역장벽을 유지

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13억의 중국 인구나 5억의 ASEAN 인구 등 총 18억 인구를 한데 묶는 거대경제권 출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중국-ASEAN FTA는 인구 18억 3,000만 명(세계 1위), 역내 국내총생산(GDP) 2조 3,000억 달러(세계 4위), 역내 교역규모 1조 6,600억 달러(세계 3위)의 거대경제권이다.⁷ 중국-ASEAN FTA 이전과 이후의 경제통합 효과의 상이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면 FTA가 경제통합에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중국-ASEAN 간 경제통합 현황을 중국-ASEAN 두 지역 간 총합적 측면과 중국과 ASEAN 각 국가별 측면으로 나누어 수출입, FDI, 인적 교류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경제통합과 관련된 경제학적 분석 모델 및 중국-ASEAN 경제통합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개괄해 본다. 또한 실질이자율 평가설을 이용하여 중국-ASEAN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을 상품 및 자본시장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요약하고 중국-ASEAN FTA 이후 경제통합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하는 경제통합의 형태이며 관세동맹은 자유무역협정에 추가적으로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공통된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보다 높은 단계의 경제통합 단계이다. 공동시장은 관세동맹보다 한 단계 진전하여 회원국 간에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이 이 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동맹은 회원국 간의 통화 및 재정정책 등의 경제정책 조화 및 통일까지 이루는 경제통합의 가장 높은 수준의 최종적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7. 보다 자세하게 중국과 ASEAN 각 국가의 경제현황을 살펴보면 중국+ASEAN GDP는 세계 GDP의 5.8%, 인구 규모는 18억 3천만 명 수준으로 전 세계의 1/3 수준이며 중국+ASEAN 10개국 GDP 규모는 2조 920억 달러이다. 또한 중국의 GDP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 규모로 ASEAN 6,824억 달러의 2배 이상 규모이며 ASEAN 국가 중 GDP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Indonesia)의 2,083억 달러 보다 7배 이상 큰 규모이다. 또한 ASEAN 국가 중 인도네시아(Indonesia), 태국(Thailand), 말레이시아(Malaysia), 싱가포르(Singapore), 필리핀(Philippines) 등 5개국이 ASEAN GDP의 91.8%를 점유하고 있는 등 국가별 편차가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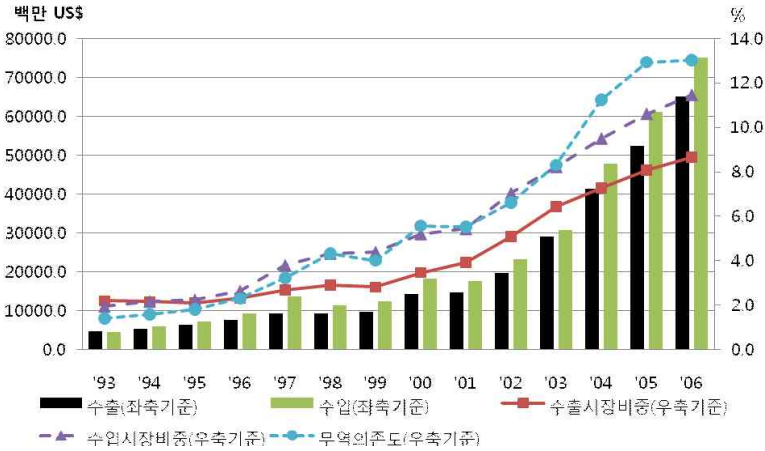
II. 중국-ASEAN 간 경제통합 현황

1. 중국-ASEAN 간 교역

중국과 ASEAN 간의 경제통합의 추세는 상품 및 자본시장, 그리고 인적 교류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먼저 중국과 ASEAN 간 상품교역인 수출, 수입을 살펴보자. 그림 1을 보면 ASEAN의 대 중국 수출입 모두 꾸준히,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0년 이후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입 연평균 증가율은 1993년에서 1999년까지 각각 16.2%(45.3억 달러에서 95.9억 달러), 23.2%(43.4억 달러에서 123.3억 달러)인데 비해 2000년에서 2006년까지의 동 증가율은 35.6%(141.8억 달러에서 650.1억 달러), 32.8%(181.4억 달러에서 749.5억 달러)로 보다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ASEAN의 대 중국 수출은 1993년 45.3억 달러로 총수출의 2.1%에 불과했지만 2000년 141.8억 달러로 총수출의 3.5%로, 2006년 650.1억 달러로 총수출의 8.7%로 증가하는 등 규모 면에서는 14배 이상,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배 이상 증가하였다.

ASEAN의 대 중국 수입의 경우도 1993년 43.4억 달러로 총수입의 1.9%에 불과했지만 2000년 181.4억 달러로 총수입의 5.2%로 증가하였고 2006년 749.5억 달러로 총수입의 11.5%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ASEAN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교역규모/GDP)도 급격히 상승하였다.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1993년 1.4%에서 2000년 5.6%로 그리고 2006년 13.0%로 9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과 ASEAN 간 상품교역은 규모, 비중 면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WTO 가입 시점인 2000년 이후와 더 나아가 중국-ASEAN FTA 이후인 2005년 이후 더욱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SEAN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심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



자료: ASEAN Statistical Yearbook 각년 호

그림 1. ASEAN의 대 중국 무역 지표

이에 비해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선도적으로 깊은 경제적 이해 관계를 맺어 오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ASEAN의 대 일본 무역의존도는 1993년 20.6%, 2000년 18.4%, 2006년 15.1%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라면 교역규모에 있어서도 곧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ASEAN의 대 일본 무역의존도의 감소는 중국과 ASEAN의 급속한 동시적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교역규모의 급증과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장기 불황을 틈탄 중국의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약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ASEAN FTA 발효 이후 두 지역 간 관세인하 효과에 따른 교역규모의 증가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ASEAN의 대 한국 무역의존도는 1993년 3.7%, 2000년 5.1%, 2006년 4.9%로 큰 변화가 없다. 2007년 6월 한국-ASEAN FTA 발효로 향후 쌍방간 교역규모의 증가가 기대되기는 하지만

- 물론 반대로 중국의 대 ASEAN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총 수출 및 수입에서 차지하는 ASEAN의 비중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및 타 지역에 대한 수출, 수입의 급증으로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중국과 ASEAN의 경제적 교류 확대는 중국의 ASEAN에 대한 의존도에 비해 ASEAN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ASEAN 교역의 증가세에 미칠지는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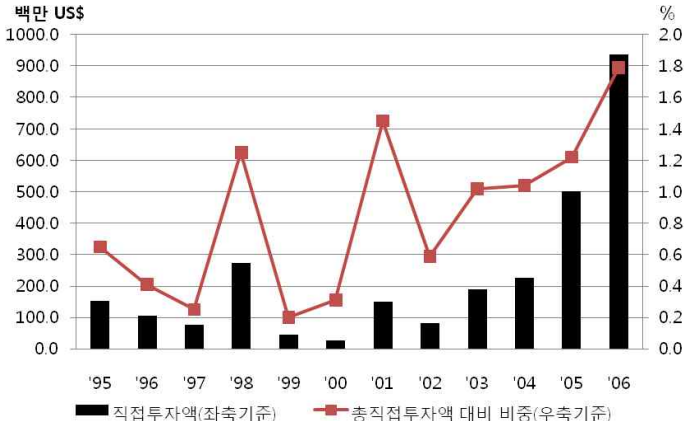
이렇듯 ASEAN의 대 일본 및 한국의 교역은 축소 내지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과의 경제적 교역은 증가일로에 있다. 중국은 2000년 WTO 가입을 통해 국제경제질서에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했고 지역적으로는 2005년 중국-ASEAN FTA 발효로 동남아시아를 자국에 포함된 거대 단일 시장으로 통합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였다(Lincoln, 2006; Liu, 2008).⁹ 중국-ASEAN FTA는 양 지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새로운 시장 개척의 요구와 함께 강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등의 대내외적 조건의 결과물이다. 또한 향후 ASEAN에서 경제적 힘의 논리가 중국 쪽으로 더욱 기울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중국의 ASEAN에 대한 FDI를 살펴보자.¹⁰ 중국의 대 ASEAN FDI는 2006년 9.4억 달러 규모로 ASEAN에 유입된 총 FDI 규모의 2% 내외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1997~1998년 외환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2002년 이후 투자금액 면에서 연평균 80% 이상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2002년 8천 1백만 달러였던 중국의 대 ASEAN FDI는 2004년 2.3억 달러, 2005년 5.2억 달러, 2006년 9.4억 달러로 4년여 만에 11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ASEAN에 유입된 총 FDI 대비 비중도 2002년 0.6%, 2003년과 2004년의 1.0%, 2005년 1.2%, 2006년 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 미얀마(Myanmar), 베트남(Vietnam) 등 후발 ASEAN 국가들에 대한 FDI는 중국의 대 ASEAN FDI의 35% 이상을 차지, 다른 국가들의 평균치인 13%에 비해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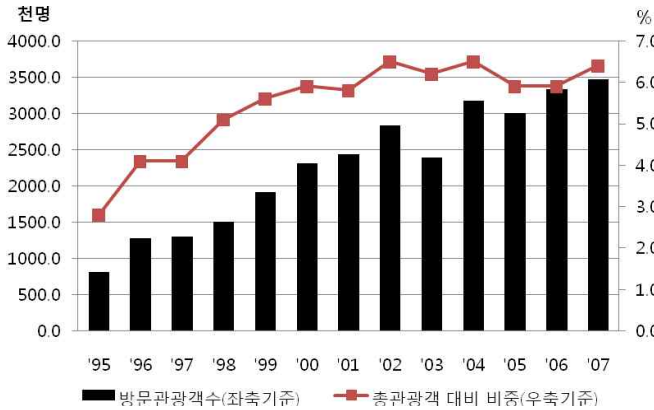
9. 중국-ASEAN FTA로 일부 민감 및 전략품목을 제외한 7,000여 개 품목(중국-ASEAN 간 상품교역의 95%를 차지)의 관세율은 인도네시아(Indonesia), 말레이시아(Malaysia), 필리핀(Philippines), 싱가포르(Singapore), 태국(Thailand), 브루나이(Brunei) 등 6개국의 경우 향후 2010년까지,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 미얀마(Myanmar), 베트남(Vietnam)의 경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비스 관련 부문의 장벽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 ASEAN 국가들의 대 중국 FDI 자료는 통계의 미비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ASEAN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을 주로 외국의 FDI 유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대외 FDI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며 공식적 통계도 거의 대부분 FDI 유입을 위주로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 ASEAN Statistical Yearbook 각 년호

그림 2. 중국의 대 ASEAN FDI 지표



자료: ASEAN Statistical Yearbook 각 년호

그림 3. ASEAN 방문 중국인 관광객 지표

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향후 이들 ASEAN 신흥개발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 교류 측면 또한 그림 3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ASEAN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 수가 1995년 82만 명 수준이었으나 2000년

230만 명, 2007년에는 346만 명으로 10여 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¹¹ 이에 비해 일본은 1995년의 330만 명에서 2007년 332만 명으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한국의 경우에도 1995년 112만 명에서 2007년 256만 명으로 2배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ASEAN과의 인적 교류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약진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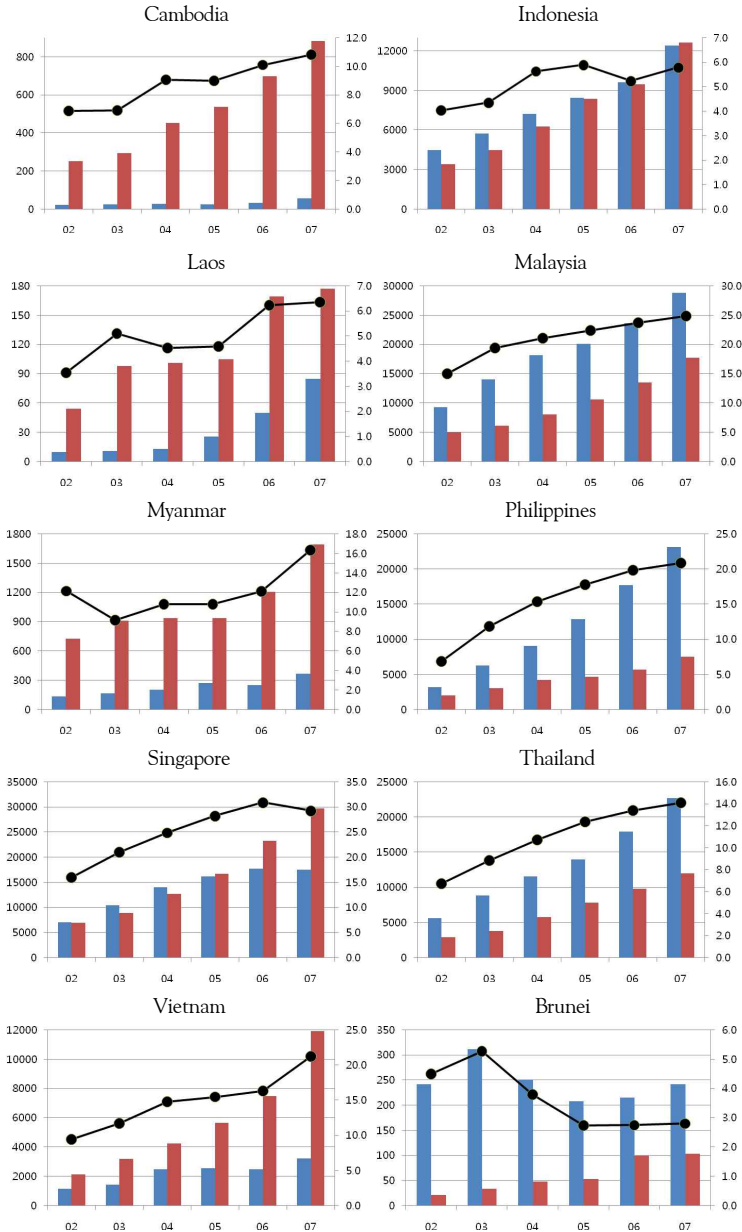
2. 중국-ASEAN 각 국가별 교역¹²

그림 4는 중국과 ASEAN 각 국가별 수출입, 무역의존도 등 교역 현황을 나타낸다. 말레이시아(Malaysia), 필리핀(Philippines), 태국(Thailand) 등의 ASEAN 선발 개발도상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적자폭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FTA 이후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 미얀마(Myanmar), 베트남(Vietnam) 등 후발 ASEAN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라오스(Laos)를 제외하면 대 중국 수출은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대 중국 수입의 경우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Vietnam)의 경우 2002~2007년 대 중국 수출은 11.6억 달러에서 43.4억 달러로 약 2.7배 증가한 데 비해 동 기간 대 중국 수입은 21.5억 달러에서 151.4억 달러로 약 6배나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GDP 대비 무역수지 적자규모도 2002년 2.8%에서 2007년 15.1%로 무려 5배 이상 급증하였다. 또한 브루나이를 제외하면 ASEAN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대 중국 무역의존도(교역규모/GDP)는 2002년 캄보디아(Cambodia) 6.9%, 라오스(Laos) 3.5%, 미얀마(Myanmar) 12.1%, 베트남(Vietnam) 9.4% 등이었으나 2007년 각각 10.8%, 6.3%, 16.3%, 21.2%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11. 인적 교류는 관광인구 외에 해외이주 노동인구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통계의 미비로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은 제외한다.
 12. 중국과 ASEAN 각 국가별 인적 교류에 대한 분석은 통계적 미비로 제외한다.

실선: 무역의존도(%), 좌우측 막대: 수출, 수입(백만 달러)



자료: WTO, ASEAN Statistical Yearbook 각 년호

그림 4. ASEAN 국가별 대 중국 교역 추이

이는 이들 후발 ASEAN 국가들이 1990년대 이후 시장개방과 이에 따른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자본재, 소비재 등을 중국에서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는 현황을 보여준다. 이처럼 ASEAN 각 국가별로도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특히 수입의존도가 증가하였고 이는 개별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점차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 ASEAN FDI를 ASEAN 6[인도네시아(Indonesia), 말레이시아(Malaysia), 필리핀(Philippines), 싱가포르(Singapore), 태국(Thailand), 브루나이(Brunei)]와 CLMV[후발주자인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 미얀마(Myanmar), 베트남(Vietnam)]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1995~2000년 중 투자된 8.2억 달러 중 84.1%인 6.9억 달러가 ASEAN 6에, 나머지 15.9%인 1.3억 달러만이 CLMV에 투자되었다. 하지만 2001~2006년 중국의 대 ASEAN FDI 총 12.5억 달러로 이중 75.5%인 9.5억 달러가 ASEAN 6에 24.5%인 3.0억 달러가 CLMV에 투자되었다. 또한 CLMV에 대한 투자규모는 2007~2008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Vietnam)의 경우 1995~2000년 0.9억 달러, 2001~2006년 1.5억 달러, 2007~2008년 3.7억 달러가 투자되는 등 급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¹³

3. 중국-ASEAN 간 경제적 교역 확대의 배경

중국과 ASEAN 간 경제적 교역과 교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배경으로는 첫째,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인한 시장의 외연적 확대를 들 수 있다. 중국에게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석탄, 석유 등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시장확대를 위한 전략적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개방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캄보디아(Cambodia), 베트남(Vietnam) 등의 경제개발 욕구는 이러한 중국의 동남아시아로의 남하전략과 맞물려지

13. 이외 국가들 중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 미얀마(Myanmar) 등의 경우에는 통계 미발표로 추후에 보완할 예정이다.

면서 쌍방간 경제적 교류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iu, 2008).

둘째,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용이한 지리적 접근성을 들 수 있다. 무역결정 이론 중 하나인 중력(Gravity)이론은 지리적 접근성을 무역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가정하는데 이러한 가설은 여러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¹⁴ 중국은 라오스(Laos), 미얀마(Myanmar), 베트남(Vietnam) 등 ASEAN 3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특히 경제개방 및 개혁 정책 이후 이들 국가들의 국경을 통한 무역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경은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캄보디아(Cambodia), 태국(Thailand)과 같은 인도차이나 국가들도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리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동남아시아로의 지리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은 이를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ASEAN과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Lincol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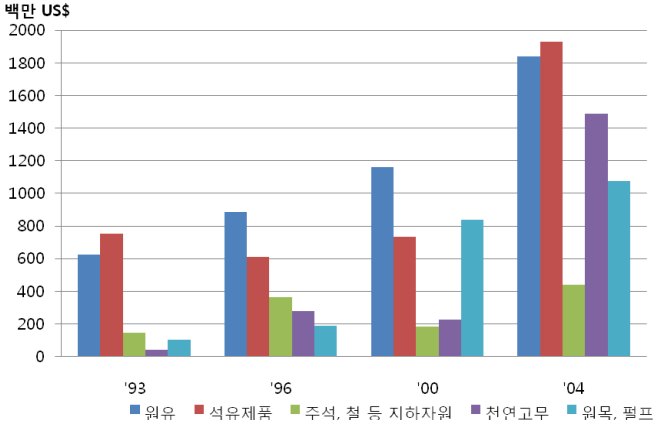
다음으로 동남아시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자본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Indonesia), 말레이시아(Malaysia), 필리핀(Philippines), 싱가포르(Singapore), 태국(Thailand) 등 공산화와 같은 정치, 경제적 격변을 겪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19세기 식민지 시대 이후(태국 제외) 오랫동안 화교자본에 의해 경제력이 장악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화교자본이 대기업 집단을 형성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화인들로의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NEP)을 오랜 동안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인들의 경제력은 말레이시아의 경제를 좌지우지 할 만큼 막강하다. 이들 ASEAN 화교자본은 중국 상인의 전통적 관습인 판시(關係)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등 친 중국적 성향을 갖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개방과 투자자유화를 통해 자유롭게 사업 파트너를 정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 화교자본을 통한 중국 기업들의 ASEAN 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물론 인도에 기원을 둔 인교들도 ASEAN 국가들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주로 개인 사

14. 중력이론은 두 국가 간 교역량이 국가의 경제규모(GDP)의 곱에 비례하고 국가 간 거리의 곱에 반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Krugman and Obstfeld(2006)는 중력이론을 이용한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두 국가간 거리가 1%만큼 멀어질 때 교역량은 0.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업 등에 집중되어 있는 등 화교자본에 비하면 그 영향력 면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중국과 ASEAN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분업적 체제가 이전의 상호 경쟁적 위치에서 점차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구매력 증가, 중화학 공업의 발달과 이에 따른 원자재 수급의 불균형은 동남아시아에서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는 곡물, 원유 및 석유제품, 주석, 고무 등의 천연자원에 대한 수요 및 수입을 증가시켰다. 또한 중국 내 전기, 전자제품 등의 생산을 위한 부품소재의 분업적 생산기지로서 ASEAN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 대 중반까지 ASEAN의 대 중국 수출 중 광물연료, 목재 등 1차 산업 상품이 30~40%를 차지한 반면 전기, 전자, 기계부품 등의 2차 산업 상품은 10% 내외에 그쳤다. 반면 동 기간 ASEAN의 대 중국 수입 중 전기, 전자, 기계부품 등의 2차 산업 상품은 20%이상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1990년 대 중반 이후 ASEAN의 대 중국 수출에서 동 제품 군의 비중이 40~50%로 높아짐에 이리한 2차 산업 상품의 수출입 격차는 점차 작아져 ASEAN의 대 중국 수출, 수입구조는 비슷한 특징을 보이게 된다(무역연구소, 2005). 더 나아가 중국-ASEAN FTA에 따른 경제적 교역의 확대는 두 지역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기계, 전자설비, 정밀기기, 자동차 등에서 ASEAN은 식품, 에너지, 농산물, 반도체 등에서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Wattanapruttpaisan, 2001 등).

아울러 중국과 ASEAN 간 경제적 상호관계의 증가는 중국과 ASEAN 양 지역의 동시적 경제성장과 지리문화제도적 측면의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두 지역간 교역 증가에 선 순환적 동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90년대 까지도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일본, 한국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교역 규모에서 전통적으로 이 지역의 맹주였던 일본을 따라 잡고 있고 FDI 및 인적 교류에 있어서도 급속도로 그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교류의 확대는 경제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향후



자료: ASEAN Statistical Yearbook 각 년호

그림 5. ASEAN의 대 중국 천연자원 수출 추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ASEAN의 지역공동체 형성의 진전과 함께 더욱 강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¹⁵

III. 모델 선택 및 가설 검정

1. 경제통합 모델

중국과 ASEAN 간 교역의 확대는 경제통합이라는 시각에서 보다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제통합의 효과와 관련된 거시경제학적 모델로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 Granger Causality 모델, 실질이자율 평가(Real Interest Rate Parity) 모델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보다 미시적인 부분의 연구를 위한 분석 모델로 무역구조분석에 의한 역내 경제의 기능적 통합효과 분석, 중력모델에 의한 통합요인 분석,

15. ASEAN은 이미 2015년까지 서비스 등의 자유무역을 포함한 높은 단계의 FTA인 AFTA(ASEAN Free Trade Area)를 목표로 경제통합을 추진 중이다.

국제간 산업연관(I/O) 분석을 통한 중간재 교역의 상호의존성 분석, FDI와 무역연계 관련 연구방법 등이 활용되어 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간 I/O 분석은 경험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통합 이후의 국제간 산업의존 관계의 변화를 관찰하거나 통합의 효과를 예측 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JETRO, 1995; Suzuki, 2003). 그러나 I/O 분석에서는 경제통합 고유의 효과만을 추출해 낼 수 없으며, 특히 국제간 I/O 분석에서는 국제간 산업분류의 불일치 및 중간재 이동에 관련된 통계상의 오차 외에도 환율변화, 비교시점이 차이로 인해 실질가치와 통계상의 수치 간에 괴리가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I/O분석은 역내 자본이동이나 산업 내 분업구조분석, CGE 모형 등 다른 분석수단과 병용될 때 그 분석결과의 한계점을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고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한편, 경제통합의 무역효과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관찰 대상으로 관련 국가들 간의 무역구조 변화추세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그 중 Francis Ng and Alexander Yeats(1999, 2003)는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결합도, 보완성, 경합도 및 다양성 지수 등을 통해 역내 제국 간 무역의존관계의 심화 과정을 관찰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 간 중간재 및 부품무역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연구는 동북아의 시장통합 방향에 대해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Kyoji, Ishido and Ito(2002), JETRO(2003), D.R. Holst(2003) 등의 무역구조분석에서는 역내 제국의 비교우위구조, 수직적 산업 내 무역, 해외직접투자와 산업 내 무역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가 혹은 지역 간 경제통합 논의는 주로 냉전 이후 국제질서 변화와 신 지역주의의 확산에 대응한 정책적 효과, 시장통합으로 인한 무역확대와 성장촉진 효과, 자본이동과 관련한 생산 및 무역의 연관효과 및 금융정책의 조정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 등에 대해 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97년 동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에는 실물부문의 통합효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내에서의 금융협력의 필요성과 그 기대효과

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관찰 대상이 경제의 특정부분에 국한되거나 분석방법이나 수단이 현실을 제약하는 일정한 가정 조건하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어서 현실경제를 고려한 통합모형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예를 들어, 최근의 경제통합에 대한 효과분석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CGE 모델(Mckibbin, 1998; Scollay and Gilbert, 2001; Mckibbin, Jong Wha Lee, and Inkyo Cheong 2003; Kawasaki, 2003)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CGE 분석모형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인한 무역자유화의 잠재적 이익을 예측하는 데에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이익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또한 다양한 경제적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야만 모델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Granger Causality 모델은 경제 변수의 인과관계를 통해 경제통합의 원인적 변수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적으로 변수 간 인과관계와 단순한 시간적 선행관계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중력(Gravity) 모델은 당사국 간의 무역이 국가 규모와 거리에 대한 중력함수라는 가정 하에 통합 관련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Frankel and Wei, 1998; Shugiro, 2003; Lee and Park, 2003 등). 이 모형에서는 지리적 인접성, 공통의 언어, 지역무역협정 가입여부 등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통합에 대한 유용한 분석수단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는 지역통합에 영향을 주는 제 변수들이 0 혹은 1의 값으로만 반영되므로 현실 세계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위의 CGE 모델이나 Gravity 모델은 여타의 경험적 분석에 의해 그 단점이 보완될 때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이자율 평가(Real Interest Rate Parity) 모델(Cheung, 2002; Laurenceson, 2003)은 경제통합에 대한 분석에 있어 자본시장(유위험 이자율 평가식, Uncovered Interest Parity) 및 상품시장(구매력 평가식, Purchasing Power Parity) 두 부문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경제통합에 진행 정도를 측정하거나 잠재적 이익을 예측할 수 없

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2. 중국-ASEAN 간 경제통합

우선 중국과 ASEAN 간 경제통합은 무역 증가 등 현상적 분석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Wong(1995)은 무역, 투자 증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과 ASEAN 간 경제통합이 이미 1990년대 이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수치적 차원의 분석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계량적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과 ASEAN의 경제적 협력 및 교류에 대한 연구(Hung and Tong, 1995; Moosa and Bhatti, 1997; de Brouwer, 1999; Aggawal, et al., 2000; Azali, et al., 2001 등)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만 중국과 ASEAN간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고 단지 그 중요성에 대해 언급되는 정도였다(de Brouwer 1999). 또한 중국-ASEAN 경제통합 관련 연구는 통계적 미비로 인해 한계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한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통계적 인프라가 점차 갖추어지면서 해소되게 되었다.

중국-ASEAN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비교적 정밀한 통계적 분석은 Voon(1998)의 연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Voon은 ASEAN이 중국이 경제성장과 WTO 가입 등을 통해 세계수출시장에서 보다 직접적인 경쟁 상대로 대두됨에 따라 ASEAN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FDI 유치에서도 중국에 밀려날 것으로 우려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Tongzon(2001)은 CGE 모델을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과 WTO 가입 등이 ASEAN 국가들에게 전체적으로 순이익을 가져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중국의 WTO 가입 이후 ASEAN 국가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두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 ASEAN의 경제적 협력이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또한 2001년 중국-ASEAN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시작 이후 연구로 Chirathivat(2002)는 Tongzon의 CGE 모델을 연장하여 중국

-ASEAN FTA가 두 지역 모두에게 경제적 순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McKibbin and Tang(2000), Lardy(2002) 등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ASEAN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에 있어 자본이동, 수출촉진정책,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변수를 추가하여 기존 CGE 모델이 가지고 있던 통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두 연구는 이러한 변수를 추가하느냐 추가하지 않느냐에 따라 중국-ASEAN 간 경제적 이익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3. 모델 선택

본 논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경제통합과 관련된 거시경제학적 모델인 CGE 모델, Granger Causality 모델, 실질이자율 평가(이하 RIRP) 모델 중에서 자료의 확보 가능성과 모델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RIRP 모델을 채택, 계량분석을 통한 중국-ASEAN 간 경제통합 가설을 검정한다. RIRP 분석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환율 등은 IMF 및 ASEAN 각국의 중앙은행 등으로부터 비교적 확보가 용이한 자료들이고 또한 계량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계열 데이터가 다른 실물경제 자료 등에 비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도 RIRP 모델을 채택할 수 있는 이유이다.

RIRP 모델은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은 국가 간 실질이자율의 격차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A국에서의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실질이자율이 B국에 비해 높다면 수익을 위해 A국으로 자본이 이동한다. 이러한 자본이동은 결국 A국에서 자본의 수익률을 낮추고 B국에서는 자본의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양 국가간 이자율의 격차를 점차 좁히는 역할을 한다.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비용(transaction cost)이 없다면 국가 간 실질이자율의 차이는 이러한 자본이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점차 상쇄되어 결국 영(0)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러한 RIRP 모델은 아래의 식 (1)과 같이 간단히 표기할 수 있다.

$$\gamma_t^{ke} - \gamma_t^{k^*e} = (i_t^k - \pi_{t+k}^e) - (i_t^{k^*} - \pi_{t+k}^{*e}) \quad (1)$$

- 단, γ_t^{ke} : t시점에서 예상한 k시점의 자국 기대 실질이자율
 $\gamma_t^{k^*e}$: t시점에서 예상한 k시점의 타국 기대 실질이자율
 i_t^k : t시점에서 확정된 k시점의 자국 명목이자율
 $i_t^{k^*}$: t시점에서 확정된 k시점의 타국 명목이자율
 π_{t+k}^e : t시점에서 예상한 k시점의 자국 기대 인플레이션율
 π_{t+k}^{*e} : t시점에서 예상한 k시점의 타국 기대 인플레이션율

식 (1)로부터 유위험이자율 평가식(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이하 UIP) 및 구매력 평가식(Purchasing Power Parity, PPP)의 관계식 (2)를 도출할 수 있다.

$$\gamma_t^{ke} - \gamma_t^{k^*e} = (i_t^k - i_t^{k^*} - \Delta s_{t+k}^e) - (\pi_{t+k}^e - \pi_{t+k}^{*e} - \Delta s_{t+k}^e) \quad (2)$$

- 단, $\pi_{t+k}^e = p_{t+k}^e - p_t$
 $\Delta s_{t+k}^e = s_{t+k}^e - s_t$
 p_{t+k}^e : t시점에서 예상한 k시점의 자국 기대 물가수준
 s_{t+k}^e : t시점에서 예상한 k시점의 자국 기대 환율

또한 합리적 기대가설을 적용하면 위의 식 (2)는 다음 식 (3)으로 전환 가능하다.¹⁶

$$\gamma_t^k - \gamma_t^{k^*} = (i_t^k - i_t^{k^*} - \Delta s_{t+k}) - (\pi_{t+k} - \pi_{t+k}^* - \Delta s_{t+k}) \quad (3)$$

16. 합리적 기대가설은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예상을 합리적으로 형성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는 경제주체들이 과거와 현재에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근거로 경제변수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고 이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예측 치와 실제 치가 확률적으로 일치해 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text{단, } \Delta s_{t+k} = s_{t+k} - s_t$$

$$\pi_{t+k} = p_{t+k} - p_t$$

p_t : t시점의 자국 물가수준

s_t : t시점의 자국 환율

식 (3)에서 첫 번째 항인 $(i_t^k - i_t^{k*} - \Delta s_{t+k})$ 은 UIP differential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두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면, 즉 자본투자를 통한 arbitrage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i_t^k = i_t^{k*} + \Delta s_{t+k}$ 가 만족한다. 결국 UIP가 타당하다면 $i_t^k - i_t^{k*} - \Delta s_{t+k} = 0$ 이 성립할 것이다.¹⁷ 두 번째 항인 $(\pi_{t+k} - \pi_{t+k}^* - \Delta s_{t+k})$ 은 PPP differential을 나타낸다. 두 국가 간 상품이동이 자유롭다면, 즉 상품판매를 통한 arbitrage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pi_{t+k} = \pi_{t+k}^* + \Delta s_{t+k}$ 가 만족될 것이다. 결국 PPP가 타당하다면 $\pi_{t+k} - \pi_{t+k}^* - \Delta s_{t+k} = 0$ 이 성립한다.

4. 가설 검정

두 국가간 경제통합의 여부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자본시장 부문을 나타내는 UIP differential과 상품시장 부문을 나타내는 PPP differential에 대한 가설검정을 통해 그 결과를 도출해 볼 수 있다. 두 국가간 경제통합이 의미 있는 정도로 진행되어 있다면 arbitrage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 즉, UIP 및 PPP differential의 통계적 기대치가 영(0)으로 수렴한다. 또한 UIP 및 PPP differential의 시계열에 대한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에 있어서도 안정적(stationary) 시계열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무가설인 단위근 가정을 기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국가 간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경제적 통합

17. arbitrage는 일반적으로 동일 상품이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를 때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판매하여 매매 차익을 얻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arbitrage는 상품의 매매 차익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외환, 채권 투자 등 자본의 이동을 통한 차익획득 활동을 나타내는 데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표 1> 계량분석에 필요한 자료 관련 정보

변수	정의	이용 자료	자료 Source	기간	시계열
i	이자율	3개월 예금금리	IFS, 중앙은행	1998. 6~2008. 12	월별
p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CPI)	IFS	1998. 6~2008. 12	월별
s	환율	대 미 달러화 월간 평균 환율	IFS	1998. 6~2008. 12	월별
π	인플레이션율	p 로부터 측정	-	1998. 6~2008. 12	월별

RIRP 모델을 통한 가설 검정을 위해 1998년 6월에서 2008년 12월까지의 중국(China)과 ASEAN 9개 국가들인 캄보디아(Cambodia), 인도네시아(Indonesia), 라오스(Laos), 말레이시아(Malaysia), 미얀마(Myanmar), 필리핀(Philippines), 싱가포르(Singapore), 태국(Thailand), 베트남(Vietnam)의 가용한 자료를 사용한다.¹⁸ 자료 source로는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 월별 자료, ASEAN 각 국 중앙은행 통계자료 등을 이용한다. <표 1>은 이들 자료에 대한 상세 정보이다.

이제 위의 모델과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ASEAN 간 FTA 가입 시점인 2005년 7월을 기점으로 그 이전(1998. 6~2005. 6)과 이후(2005. 7~2008. 12)를 분석, 검정 결과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다. 만약 FTA 이후가 이전보다 PPP 모델에 부합한다면 중국-ASEAN 간 상품시장 간 통합이 경제통합 이론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UIP 모델을 통해 중국-ASEAN 간 자본시장 간 통합에 대한 검정과 이에 따른 시사점도 찾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가설검정을 위해 우선 중국과 각 ASEAN 국가들 간의 UIP differential 과 PPP differential의 평균치(mean)를 측정하고 이 수치가 통계적으로 영(0)과 같은지 아닌지 t-test를 통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UIP differential 과 PPP differential이 안정적 시계열인지에 대한 가설검정을 위

18. 브루나이(Brunei)는 통계적 미비로 분석에서 제외한다.

해 각각의 시계열에 대해 Augmented Dickey Fuller(이하 ADF), Phillips-Perron(이하 PP)의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를 실시한다.¹⁹ 이를 통해 중국과 ASEAN 간 경제통합이 과연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이것이 FTA 이후에 보다 심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²⁰

<표 2>는 UIP differential 과 PPP differential의 평균치(mean)에 대한 t-test의 결과를 보여준다. 두 국가 간 자본 및 상품의 이동이 자유롭다면 교역장벽으로 인한 차익(arbitrage)은 소멸될 것이다. 그러므로 arbitrage의 크기를 나타내는 UIP differential 과 PPP differential은 영(0)으로 수렴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평균치가 통계적으로 영(0)과 같은지에 대한 검정 결과를 보면 우선 UIP differential의 경우 FTA 이전 모든 국가들의 경우에서 mean이 영(0)인 가설을 기각할 수 있지만 FTA 이후에는 말레이시아(Malaysia)와 태국(Thailand) 2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서만 mean이 영(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시장에서 양 지역 간에 arbitrage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자본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PPP differential의 경우 FTA 모든 경우에서 평균치가 영(0)인 가설을 기각하는 반면 FTA 이후에는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 필리핀(Philippines), 싱가포르(Singapore), 베트남(Vietnam) 등 5개국의 경우에서 평균치가 영(0)인 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태국(Thailand)의 경우 FTA 이전 1%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었던 반면 FTA 이후에는 10%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FTA 이후 상품시장 간 무역장

19. Augmented Dickey Fuller test는 가장 일반적인 단위근 검정방법이고 Phillips-Perron test는 Augmented Dickey Fuller test의 대체적 방법 중의 하나로 계열상관(serial correlation)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검정 방법이다.

20. 중국과 ASEAN 각 국가별 가설검정 외에 중국과 ASEAN 각 국가별 자료를 pooling 하여 중국과 ASEAN 전체로서의 양 지역 간 UIP 및 PPP 가설에 대한 t-test와 ADF 및 PP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으나 FTA 이후 양 지역 간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ASEAN내 각 국가 별로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고 경제통합의 정도 또한 각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현실을 고려하면 크게 이상한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각 가설검정의 통계적 결과치는 생략한다.

벽이 해소되고 상품교역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arbitrage가 가능한 PPP

<표 2> 중국과 ASEAN 국가의 UIP 및 PPP differential 평균치(mean) t-test

	UIP differential		PPP differential	
	FTA 이전 (1998.6~2005.6)	FTA 이후 (2005.7~2009.1)	FTA 이전 (1998.6~2005.6)	FTA 이후 (2005.7~2009.1)
Cambodia	1.312**	-0.537***	1.962***	0.624
Indonesia	10.881***	7.283***	5.586***	5.857***
Laos	22.993***	6.705***	5.670***	3.389
Malaysia	-1.208***	0.822	-3.491***	0.024
Myanmar	3.020***	8.232***	18.062***	22.692***
Philippines	3.805***	2.703***	2.944***	1.204
Singapore	-3.900***	-1.516***	-4.740***	-0.684
Thailand	1.306***	0.175	-2.570***	1.066*
Vietnam	3.142***	4.040***	5.487***	1.015

주: 1)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한 것을 의미한다.
 2) 음영표시는 FTA 이전과 이후 가설검정 결과 기각에서 채택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differential이 점차 해소(0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위의 결과는 중국-ASEAN FTA가 상품교역에 국한되었고 자본이동에 대한 사항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현실과 어느 정도 부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FTA 이후에도 자본이동의 통제로 인해 UIP differential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반면 상품시장에서는 PPP differential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표 3>과 <표 4>는 각각 UIP와 PPP differential에 대한 ADF 및 PP 단위근 검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표 3>의 ADF 단위근 검정 분석결과를 보면 UIP differential의 경우 태국(Thailand)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FTA 이전 단위근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다(이는 시계열이 안정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FTA 이후의 경우 인도네시아(Indonesia), 말레이시아(Malaysia), 싱가포르(Singapore), 태국(Thailand) 4개국에서 단위근 귀무가설을 각각 유의수준 1%, 10%, 10%, 5%에서 기각할 수 있다.

PPP differential의 경우 FTA 이전 캄보디아(Cambodia), 라오스(Laos),

말레이시아(Malaysia), 미얀마(Myanmar), 싱가포르(Singapore), 태국(Thailand)

<표 3> 중국과 ASEAN 국가의 UIP 및 PPP differential ADF 단위근 검정

	UIP differential		PPP differential	
	FTA 이전 (1998.6~2005.6)	FTA 이후 (2005.7~2009.1)	FTA 이전 (1998.6~2005.6)	FTA 이후 (2005.7~2009.1)
Cambodia	-2.571	-2.144	-3.012**	-4.127***
Indonesia	-1.154	-3.603***	-2.764	-6.227***
Laos	-1.629	-1.659	-3.625***	-3.091**
Malaysia	-1.373	-2.876*	-3.137***	-4.587***
Myanmar	-1.648	-1.484	-3.160***	-4.747***
Philippines	-2.220	-2.217	-4.000***	-3.965***
Singapore	-1.594	-4.732***	-1.610	-6.797***
Thailand	-2.869*	-2.941**	-6.456***	-4.062***
Vietnam	-1.634	1.600	-2.844	-7.995***

- 주: 1)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한 것을 의미한다.
 2) 각 검정은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SIC)를 최소화하는 lags를 선택하였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수항(intercept)은 포함하고 시간추세선(time trend)은 포함하지 않았다.
 3) 음영표시는 FTA 이전과 이후 가설검정 결과 기각에서 채택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표 4> 중국과 ASEAN 국가의 UIP 및 PPP differential PP 단위근 검정

	UIP differential		PPP differential	
	FTA 이전 (1998.6~2005.6)	FTA 이후 (2005.7~2009.1)	FTA 이전 (1998.6~2005.6)	FTA 이후 (2005.7~2009.1)
Cambodia	-2.496	-2.032	-2.872	-3.838***
Indonesia	-0.756	-3.603***	-2.406	-6.227***
Laos	-1.844	-1.513	-4.725***	-3.091**
Malaysia	-2.459	-2.876*	-6.745***	-4.573***
Myanmar	-1.867	-1.718	-3.329**	-4.738***
Philippines	-2.145	-2.350	-3.669***	-3.985***
Singapore	-1.554	-4.732***	-1.473	-6.857***
Thailand	-2.674*	-2.831*	-6.344***	-3.892***
Vietnam	-2.019	-0.883	-1.093	-7.995***

- 주: 1) *, **, ***은 각각 10%, 5%, 1%에서 유의한 것을 의미한다.
 2) 각 검정은 Schwarz Information Criterion(SIC)를 최소화하는 lags를 선택하였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수항(intercept)은 포함하고 시간추세선(time trend)은 포함하지 않았다.
 3) 음영표시는 FTA 이전과 이후 가설검정 결과 기각에서 채택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등 6개국에서 1% 유의수준에서 단위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데 비해

FTA 이후 9개국 모두에서 단위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PP 단위근 검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표 4>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위에서 본 가설 검정의 결과는 상품교역의 경우 중국-ASEAN FTA 이후 인도네시아(Indonesia), 싱가포르(Singapore), 베트남(Vietnam)을 제외한 6개국에서 PPP가 만족하는 등 중국과 ASEAN 간 시장통합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FTA 이후에 인도네시아(Indonesia), 싱가포르(Singapore), 베트남(Vietnam)도 단위근 가설을 기각하는 등(PPP가 만족) 중국-ASEAN 국가들 간 상품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UIP 분석을 통해 볼 수 있는 자본자유화 또는 자본시장 통합의 경우 FTA 이전 태국을 제외(10% 유의수준에서 기각) 하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단위근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등 UIP가 만족하지 못한다. 이는 중국-ASEAN 국가들 간 자본이동이 상품시장의 통합 및 교역의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FTA 이후에는 인도네시아(Indonesia), 말레이시아(Malaysia), 싱가포르(Singapore)에서 단위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이는 이들 국가에서 UIP가 만족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검정결과는 중국-ASEAN FTA를 통해 중국-ASEAN 국가들 간 상품시장의 통합이 보다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지하는 데 비해 자본의 이동은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2005년 7월 중국-ASEAN FTA의 발효 이후 중국과 ASEAN 각 개별 국가간 경제적 통합이 경제통합 모델 중 하나인 실질이자율 평가설(RIRP)을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되는지 분석하였다. RIRP는 다시 자본시장을 나타내는 유위험이자율 평가식(UIP)과 상품시장을 나타내는 구매력 평가식(PPP)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자본시장 및 상품시장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FTA 이후 중국과 ASEAN 간 경제통합에 있어서 두

시장의 차별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UIP differential 과 PPP differential의 평균치(mean)에 대한 t-test 및 시계열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통해 상품시장에서는 중국과 ASEAN 간의 통합이 FTA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데 비해 자본시장의 경우 통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ASEAN FTA가 상품시장에 있어서는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보다 자유로운 상품교역이 진행되는 현상을 반영하는데 비해 자본시장 통합에 있어서는 아직 자본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FTA를 통한 중국-ASEAN 간 경제통합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ASEAN 각 국가별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중국과 ASEAN의 총합적 차원에서는 경제통합의 정도를 계량적 분석 방법으로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ASEAN 각 국가들의 경제개발 및 발전 단계의 상이성 등 상대적 차이, 이로 인한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의 차이를 통계적 분석틀 내에 포괄할 수 없었던 점도 차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2005. 「중국-ASEAN FTA의 주요내용과 우리 수출에 대한 영향」.
- Aggawal, R., Montanes, A., and Ponz, M. 2000. "Evidence of Long-run Purchasing Power Parity: Analysis of Real Asian Exchange Rates in Terms of the Japanese Yen." *Japan and the World Economy* 12(4). pp. 351-361.
- Azali, M., Habibullah, M.S., Baharumshah, A.Z. 2001. "Does PPP Hold between Asian and Japanese Economies? Evidence Using Panel Unit Root and Panel Cointegration." *Japan and the World Economy* 13(1). pp. 35-50.
- Chirathivat, S. 2002. "ASEAN-China Free Trade Area: Background, Implications and Future Development." *Journal of Asian Economics* 13. pp. 671-686.
- de Brouwer, G. 1999.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nkel, J., and S.J. Wei. 1998. "Regionalization of World Trade and Currencies: Economics and Politics." *The Regionalization of the World Economy*, edited by J. Frankel. Chicago University Press, Chicago.
- Hung, B. and Tong, C. 1996. "Financial Integration of the East Asian Economies: Evidence from Savings and Investment Correlation." *Hong Kong Economic Papers* 24. pp. 101-111.
- JETRO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Asian Input Output Table*. 1985, 1990, 1995.
- JETRO. 2003. *Prospects for Free Trade Agreements in East Asia*.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 Kawasaki, K. 2003. "The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in Asia."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3-E-018,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September 2003.
- Krugman, P. and Obstfeld, M. 2006. "World Trade: An Overview."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 Policy*. p. 43.
- Kyoji, F., Ishido, H., and Ho, K. 2002.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ast Asia."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3-E-001,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Japan.
- Lardy, N. 2002. *Integrating China into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Lee, J. and Park, I. 2003. "Free Trade Areas in East Asia: Discriminatory or Nondiscriminatory?." In proceeding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The Institute of Northeast Asian Business and Economics. Korea University, Seoul.
- Lincoln, P. Z. 2006. "Economic Integration of ASEAN and China." *NUCB Journal of Economics and Information Science* 50(1). pp. 121-136.
- Liu, F. 2008. "Beijing's Regional Strategy and China-ASEAN Economic Integration." *China Brief* 8(10).
- Mckibbin, W. 1998. "Regional and Mult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he Effects on Trade, Investment and Welfare." P. Drysdale and D. Vines eds. *Europe, East Asia and APEC: A Shared Global Agenda?*.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95-220.
- Mckibbin W., Lee, J., J. and Cheong, I. 2002. "A Dynamic Analysis of a Korea-Japan Free Trade Area: Simulations with the G-Cubed Asia-Pacific Model." Working Paper 02-09,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 McKibbin, W. and Tang, K.K. 2000. "Trade and Financial Reform in China: Impacts on the World Economy." *World Economy* 23(8). pp. 979-1003.
- Moosa, I., Bhatti, R. 1997. "Are Asian Markets Integrated? Evidence for Six Countries vis-à-vis Japan."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11(1). pp. 51-67.

- Ng, F. and Yeats, A. 1999. "Production Sharing in East Asia: Who Does What for Whom and Why?" Working Paper, No. 2197, The World Bank.
- _____. 2003. "Major Trade Trends in East Asia, What are their Implications for Regional Cooperation and Growth?"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084, June 2003.
- Roland-Holst, D. 2003. "East Asian Patterns of Comparative Advantage." *ADB Institute Research Paper Series*, No. 20.
- Scollay, R., and Gilbert, J. 2001. *New-Sub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in the Asia-pacif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ashington, DC.
- Suzuki, K. 2003. "Changing Flying Geese: Measuring Structural Change in East Asia with Asian International Input- Output Table." Working Paper, 172, The European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 Urata, S. 2003.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with a Focus on Trilateral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The View from Japan."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The Institute of Northeast Asian Business and Economics, Korea University, Seoul, September 2003.
- Voon, J.P. 1998. "Export Competitiveness of China and ASEAN in the US Market." *ASEAN Economic Bulletin* 14(3). pp. 273-291.
- Wattanaprutpaisan, T. 2001. "ASEAN-China Economic Relationships and Co-operation in Trade and Investment: Patterns and Potential." a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China-ASEAN Entrepreneur Exchanges*. China National Committee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hengdu, China, 22-23 October 2001.
- Wong, J. 1995. "China's Economic Reform and Open-door Policy Viewed from Southeast Asia." *ASEAN Economic Bulletin* 11(3). pp. 269-279.

Economic Integration of China and ASEAN:

Focused on the Change after Free Trade Agreement

Ra, Hee-Ryang

Professor,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uses international real interest parity conditions to analyze the extent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especially after China-ASEAN Free Trade Agreement in

July 2005. The two-way flows between China and ASEAN have been on a rapid increase after the China's joining of WTO in 2000 and especially after China-ASEAN FTA in 2005.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China and ASEAN is expected to advance more rapidly and comprehensively.

Uncovered interest parity condition and purchasing power parity condition based on real interest parity condition is examined to figure out whether the integration of capital market and, goods market is real in terms of econometric terms. The methodology has an advantage over using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s a measure of economic integration. In particular, parity conditions have a foundation in macroeconomic theory and provide a benchmark of what could be expected if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countries were low.

The results of our analysis indicate that China and ASEAN were already highly integrated with respect to goods and services markets before FTA. In contrast, barriers to financial integration remained significant even before FTA. Also, they indicate that both goods and services markets appear more integrated after FTA in some countries. The integration of financial markets seems to have more room for future advancements. The impact of future liberalization mandated through WTO and the China-ASEAN FTA is expected to be pronounced in both markets.

Key Word: Economic Integration, China-ASEAN FTA, Real Interest Rate Parity, Uncovered Interest Parity, Purchasing Power Parity, Goods Market, Capital Market

나희량. 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전임강사
부산시 남구 우암동 산 55-1 번지
Tel_051 640 3153 Fax_051 640 3563 Email_heeryang@puufs.ac.kr